

김학범 “3-4-3 전술 ... 화끈한 공격으로 밀집수비 뚫겠다”

〈아시아게임 축구 대표팀 감독〉

원톱 손흥민 ... 좌우 공격수에 이승우 황희찬 출격
좌우 윙백 적극 공격가담 공격진 숫자 최대한 늘려



김학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8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예선에서 가동할 기본 전술은 '공격적 스리백'이다. 좌우 윙백들의 적극적인 공격가담으로 공격진의 숫자를 늘려 '선수비 후역습'에 나설 상태 팀들의 밀집 방어를 화끈한 공격 축구로 뚫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학범 감독은 3-4-3 전술을 '공격적 스리백'의 핵심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12일 새벽 태극전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국내 취재진과 만나 "상대를 흔들기에는 3-4-3 전술이 더 낫다"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달 16일 아시안게임에 나설 태극전사를 확정하면서 3-5-2 전술에 맞춰 20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투톱 공격자원으로 손흥민(토트넘)-나상호(광주), 황희찬(잘츠부르크)-황의조(김해 오사카)가 포진했고, 2선 공격수 자리에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황인범(아산)-김정민(리페링)이 이름을 올렸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승우(광주)-장윤호(전북), 좌우 윙백에는 김진야(인천)-이진현(포항)과 김문환(부산)-이시영(성남)이 뽑혔다.

스리백에는 황현수(서울)-정태욱(제주), 김민재(전북), 조우민(수원FC)-김건우(울산)가 발탁됐고, 골키퍼는 송병근(전북)-조현우(대구)가 선택을 받았다.

김 감독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전지훈련에서도 스리백과 포백을 병행하며 훈련

했다. 또 김 감독은 지난달 31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하면서 3-4-3 전술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초반 해외파 공격수인 손흥민, 황의조, 이승우, 황희찬이 소속팀 일정으로 조기 합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국내파 스트라이커인 나상호를 최전방 원톱으로 놓고 좌우에 김진야와 이시영을 주로 포진시킨 3-4-3 전술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일 황의조를 시작으로 지난 8일 이승우와 황희찬까지 소속 팀에 모이면서 대표팀은 더 세밀한 공수 전술 훈련에 나섰다. 기본 전술은 여전히 3-4-3 전술이었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상대 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5-2 전술보다 3-4-3 전술이 상대를 흔들는데 더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3-4-3 전술의 경우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고 좌우 공격수에 이승우와 황희찬이 함께 출격할 수 있어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5-2 전술에서는 이승우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라도 이승우가 경기 도중 왼쪽 측면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황희찬이 오른쪽 공간을 더 활용하면 3-5-2 전술이 자연스럽게 3-4-3 전술로 바뀐다.

경기 도중 포메이션 변화는 상대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마련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전술이 경기 초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김 감독은 공격적 스리백의 완성체로 3-4-3 전술에 무게를 두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여자핸드볼 '2회 연속 우승' 시동

내일 A조 1차전 남북대결

2018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게임 첫 남북대결이 14일 여자핸드볼에서 펼쳐진다.

14일 오후 6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여자핸드볼 조별리그 A조 1차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는 이번 대회를 통틀어 처음 성사된 남북대결이다.

이번 대회 여자핸드볼에서 한국은 북한,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첫 남북대결에서는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지금까지 열린 7차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를 독식한 아시아 최강이기 때문이다.

이계정 감독(삼척시청)이 지휘하는 한

국 여자핸드볼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반면 북한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다시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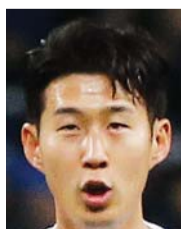
당시 북한은 중국, 일본, 인도와 예선을 치러 1승 2패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5~6위전에서 대만을 꺾고 5위로 대회를 마쳤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34-24로 물리친 바 있다.

북한이 한동안 국제무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정확한 전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한국이 한 수 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계정 감독은 "우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목표 달성을 통해 최근 다소 침체한 한국 여자핸드볼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100경기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26·사진)이 프리미어리그 1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정경기에 교체 출전해 2015년 9월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 약 3년 만에 100경기를 채웠다. 그는 2015-201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했다.

주전 자리를 쟁한 2016-2017시즌엔 34경기를 뛰었고, 지난 시즌엔 37경기에 나서 총 99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그리고 이날 2018-2019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그라운드를 밟아 100경기 고지를 밟았다.

한국 선수로는 4번째 기록이다. 박지성, 기성용(뉴캐슬), 이청용이 손흥민에 앞서 100경기를 뛰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은 손흥민이 갖고 있다. 총 3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 3경기당 1골씩 넣은 셈이다.

한편 이날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손흥민은 2-1로 앞선 후반 34분 벨리 알리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땀기를 보여주지 못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는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뉴캐슬로 이적한 기성용은 결장하면서 손흥민과의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금메달 따러 왔습니다” 2018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새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세 이강인 1군 데뷔골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 프리시즌 교체출전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과 경기에서 헤딩 췌기골

스페인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기대 스타 이강인(17·발렌시아)이 프리시즌에 5경기 연속 교체 출전하며 1군 무대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이강인은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 메스타야에서 열린 바이엘 레버쿠젠(독일)과의 출전 경기에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뒤 2-0으로 앞선 후반 41분 헤딩으로 췌기골을 넣었다. 이로써 이강인은 1군 무대 첫 골을 신고했다.

이강인은 앞서 로잔 스포르(스위스) 전을 시작으로 PSV에인트호번(네덜란드), 레스터시티, 에버턴(이상 잉글랜드)전까지 최근 1군 4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유소년 팀 소속 선수가 2군 경기가 아닌 1군 경기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이강인이 이례적이다.

발렌시아는 전반 27분 산티 미나, 35분 호드리구 모레노의 연속골로 2-0 리드를 잡았고, 이강인은 후반 33분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강인은 후반 41분 후베르 베조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했다. 5경기 연속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강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강인 12일(한국시간) 열린 바이엘 레버쿠젠(독일)과의 출전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1분 1군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강인 인스타그램 캡처>

렬한 인상을 남기며 정규리그에서도 활약 기대를 부풀렸고, 발렌시아는 3골 차 우승을 다했다. /연합뉴스

오지현 우승

KLPGA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5년 만에 '골프여왕'을 바라보는 오지현(22)이 하반기 첫 대회부터 우승을 신고하며 상금랭킹 1위를 되찾았다.

오지현은 12일 제주 오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4개의 버디를 뽑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정상에 올랐다. 통산 6승째.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 제패 이후 2개월 만에 시즌 두번째 우승을 거둔 오지현은 우승 상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최혜진(19)에게 내줬던 상금랭킹 1위(6억6643만원)에 복귀했다.

김지영에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오지현은 3번 홀(파3) 그린 밖에서 친 15m 퍼트가 홀에 들어가는 행운의 버디로 공동 선두에 올랐고, 김지영의 5번 홀(파5) 보기로 단독 선두로 나섰다.

오지현은 10번 홀(파4)에서 3m 버디를 잡아내 2타 차로 달아나더니 이어진 11번 홀(파4)에서 세 번째 샷을 1.5m에 붙여 1타를 더 줄였다.

김지영이 11번 홀에서 네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1타를 잃은 덕에 단숨에 3타차 리드를 잡은 오지현은 16번 홀(파4)에서 집인 버디를 잡아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12일 제주 오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을 차지한 오지현이 대회 관계자들과 함께 물허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